해외경제 · 투자정보

2010. 3.
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

# 2009년 폴란드 승용차 시장, 전년 수준 유지

## 1. 자동차 생산 현황

### □ 연도별·차종별 생산 현황

○ 폴란드 통계청(GUS)에 따르면, 2009년 중 폴란드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7.1% 감소한 878,986대를 기록함.

○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전년 대비 2.8% 감소한 818,800대로 전체 생산량의 93.2%를 차지하였고, 경상용차·상용차는 44.3% 감소한 55,364대(6.3%), 버스는 5.5% 증가한 4,822대(0.5%)를 각각 기록함.

○ 승용차 생산량이 전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은 수출 주도형의 산업구조 하에서 주요 수출대상국인 EU 회원국이 폐차 인센티브 정책[1]을 도입함에 따라 소형차 수출 수요가 증가한 것임.

**<표 1>** 차종별 자동차 생산량 추이

단위: 대, %

| 구 분 | 2006 | 2007 | 2008 | 2009e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대수 | 증가율 |
| 승용차 | 632,300 | 695,000 | 842,000 | 818,800 | -2.8 |
| 경상용차 및 상용차 | 76,100 | 86,061 | 99,387 | 55,364 | -44.3 |
| 버스 | 6,200 | 3,554 | 4,572 | 4,822 | 5.5 |
| 계 | 714,600 | 784,615 | 945,959 | 878,986 | 7.1 |

자료: 폴란드 통계청(GUS), 유럽자동차제조협회(ACEA).

1) 글로벌 경제 위기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자 교체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독일, 영국,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도입된 제도로 노후 차량을 연비가 좋은 자동차로 교체시 구입비용을 지원함.

## □ 제조업체별 생산현황

○ 폴란드의 주요 완성차 제조업체는 이탈리아 Fiat, GM의 자회사인 Opel과 Volkswagen의 폴란드 현지법인, 폴란드 로컬업체 FSO 등임.

○ 폴란드의 자동차 산업은 1990년대 대우자동차가 FSO를 인수(1995년)하고, Fiat, GM, Volkswagen이 서유럽 시장의 생산 기지로 폴란드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음. 특히 2000년 대우자동차의 부도 이전까지 Daewoo-FSO가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였음.

○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Daewoo-FSO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2000년대 초에는 자동차 생산이 저조하였으나, Fiat가 Panda 모델을 폴란드 Tychy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하고 Opel이 Astra II를 생산하기 위해 폴란드 Gliwice 공장을 증설하면서 생산량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음.

○ 완성 승용차의 최대 생산업체는 Fiat임. Fiat의 폴란드 Tychy 공장은 이탈리아, 남미에 버금가는 대형 생산라인의 하나로 2009년에 전년 대비 약 20% 증가한 6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됨.

- 주력 모델은 소형 컴팩트 자동차인 Panda, Fiat 500, Ford Ka 등이며 Panda가 2009년 전체 생산량의 약 50%를 차지하였음. Fiat 500이 약 17만 대, Ford Ka가 약 10만 대 생산된 것으로 집계됨.

- 폴란드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인 Samar에 따르면 Fiat가 2009년 1~11월 중 4개 업체(Fiat, Opel, Volkswagen, FSO)의 생산량 747,464대 중 72.8%인 총 544,325대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됨.

○ Gliwice 공장에서 Astra 모델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Opel은 2009년 중 경제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전년 대비 43.5% 감소한 96,700대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됨.

○ T5, Caddy III와 같은 경상용차를 주로 생산하는 Volkswagen (Poznan 공장)의 승용차 생산량은 2009년 1~11월 중 79,203대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음.

○ Matiz, Lanos, Aveo 등 컴팩트카 위주로 생산하는 FSO[2]는 주력 수출 시장인 우크라이나의 경제 불황에 따른 수출 급감으로 2009년 11월 말 기준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무려 74.3% 감소한 36,986대로 저조한 실적을 보임.

**<표 2>** **제조업체별 승용차 생산대수**
(2009년 1~11월 기준)

단위: 대, %

| 자동차 제조업체 | 생산대수 |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| 비중 |
|---|---|---|---|
| Fiat Auto Poland | 544,325 | 27.5 | 72.8 |
| Opel | 86,950 | -47.3 | 11.6 |
| Volkswagen | 79,203 | -0.2 | 10.6 |
| FSO | 36,986 | -74.3 | 5.0 |

자료: Samar.

## 2. 자동차 판매현황

### □ 신차 내수 판매 현황

○ 유럽자동차제조협회(ACEA)에 따르면, 폴란드의 2009년 중 신차 판매실적은 전년 대비 7.3% 감소한 372,789대를 기록함.

-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전년 대비 0.1% 증가한 320,120대로 전체의 85.9%를 차지하였으며, 3.5톤 미만의 경상용차는 28.6% 감소한 41,614대(11.2%), 3.5톤 이상의 상용차는 54.7% 감소한 10,102대(2.7%), 버스는 45.5% 감소한 953대(0.2%)를 기록함.

2) 대우자동차 부도로 Daewoo-FSO가 우크라이나의 재벌기업인 UkrAvto에게 인수된 후 UkrAvto의 자회사인 우크라이나 자동차 제조업체 AvtoZAZ와 GM 대우가 60:40의 지분 비율로 2007년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임.

- 법인이 4인용 이상 승용차를 구매하면 22%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등 신차 구매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에 힘입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의 신규 판매가 2008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.

○ 폴란드의 신차 판매량은 EU 27개 회원국의 2009년 중 총판매량(신차 등록 기준 15,757,985대)의 2.4% 수준으로 독일 400만 대(25.6%), 프랑스 270만 대(17.2%), 이탈리아 230만 대(14.9%), 영국 220만 대(14.1%), 스페인 110만 대(6.8%), 벨기에 54만 대(3.4%), 네덜란드 45만 대(2.9%)에 이어 8위 규모임.

**<표 3>　　차종별 신규 자동차 판매대수 추이**

단위: %

| 구 분 | 2006 | 2007 | 2008 | 2009e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대수 | 증감률 |
| 승용차 | 238,993 | 292,376 | 319,922 | 320,120 | 0.1 |
| 경상용차(3.5톤 이하) | 38,618 | 53,401 | 58,308 | 41,614 | -28.6 |
| 상용차(3.5톤 이상)주) | 15,896 | 24,586 | 22,302 | 10,102 | -54.7 |
| 버스 | n/a | 1,305 | 1,748 | 953 | -45.5 |
| 계 | n/a | 371,668 | 402,280 | 372,789 | 7.3 |

주: 버스를 제외한 3.5톤 이상의 트럭
자료: 유럽자동차제조협회(ACEA).

○ 제조업체별 신차 판매량은 Skoda가 37,944대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, Fiat(31,740대), Toyota(27,820대), Ford(26,879대), Volkswagen(26,640대), Opel(22,101대) 등의 순임.

- 소형 콤팩트 모델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, 모델별 판매 순위는 Skoda의 Octavia가 전년 대비 31.8% 증가한 18,918대(시장 점유율 5.9%), Fabia 13,980대(4.4%), Fiat의 Punto 10,560대(3.3%), Volkswagen의 Golf 9,880대(3.1%) 등으로 조사됨.

- 우리나라의 기아차가 생산한 cee'ds는 전년 대비 8% 증가한 8,350대로 7위(시장 점유율 2.6%), 현대자동차의 i30는 전년 대비 59% 증가한 6,707대로 9위(2.1%)를 각각 차지하였으며, 2009년에 신규 출시된 기아차의 Soul이 2,130대, 현대자동차의 i20이 1,396대 판매되는 등 폴란드

자동차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음.

**<표 4> 제조업체별 신차 판매 순위**

(2009년 기준)

단위: %

| 자동차 제조업체 | | 판매대수 | 증감율 | 시장점유율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Skoda | 37,944 | 15.38 | 11.8 |
| 2 | Fiat | 31,740 | 8.58 | 9.9 |
| 3 | Toyota | 27,821 | -20.18 | 8.7 |
| 4 | Ford | 26,879 | 15.82 | 8.4 |
| 5 | Volkswagen | 26,640 | 12.39 | 8.3 |
| 6 | Opel | 22,101 | -20.90 | 6.9 |
| 7 | Renault | 17,292 | -11.17 | 5.4 |
| 8 | Kia | 14,059 | 24.06 | 4.4 |
| 9 | Peugeot | 12,619 | -23.68 | 3.9 |
| 10 | Hyundai | 12,645 | 25.59 | 3.9 |
| 11 | Honda | 12,039 | -18.19 | 3.8 |
| 12 | Nissan | 10,009 | 26.54 | 3.1 |
| 13 | Citroen | 9,618 | -30.19 | 3.0 |
| 14 | Mitsubishi | 8,468 | 94.98 | 2.7 |
| 15 | Suzuki | 7,819 | 0.23 | 2.4 |

자료: Samar.

## □ 중고차 수입 현황

○ 중고차 시장의 규모가 큰 폴란드의 2009년 중고차 수입 규모는 2004년 EU 가입 이후 최저 수준이자 전년 대비 37.2% 감소한 693,000대로 집계됨. 이는 상반기 중 즈워티화의 약세 지속, 특소세율 인상, 주요 수입국인 독일, 프랑스 등의 폐차 인센티브제 시행 등으로 중고차 시장이 위축되었기 때문임.

-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하여 개정한 특소세법이 200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9년 중 중대형급 중고차 수입이 감소하였음. 이 법에 따르면 배기량 2,000cc 미만의 자동차에는 3.1%, 2,000cc 이상의 자동차에는 18.6%의 특소세율이 적용됨.

<표 5> 연도별 중고차 수입대수 추이

단위: %

| 2004 | 2005 | 2006 | 2007 | 2008 | 2009e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대수 | 증감률 |
| 828,142 | 870,777 | 816,789 | 994,564 | 1,103,970 | 693,000 | -37.2 |

자료: Samar.

□ 수출 현황

○ 폴란드의 자동차 산업은 수출 주도형임. Samar에 따르면 2009년 수출 비중은 승용차 97.9%(2008년 97.4%), 경상용차 96.99%(2008년 96.5%), 버스 85.5%(2008년 72%)로서 모든 차종에서 전년보다 상승하였음.

- 주요 수출국인 독일(수출 비중 33% 이상), 이탈리아, 프랑스, 영국 등이 2009년 중 폐차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에 따라 소형차 수요가 증가하여 수출 비중이 높아짐.

## 3. 2010년 자동차 시장전망

□ 경기 부양책 종료 등으로 생산·판매량 감소 예상

○ 2009년에 생산량이 대폭 감소했던 Opel은 2009년 11월부터 생산되고 있는 새로운 Astra 해치백 모델의 2010년 판매목표를 180,000대로 설정하는 등 Gliwice 공장에서 2010년 중 총 240,000대를 생산할 계획이어서 생산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임.

○ FSO도 대주주인 AvtoZAZ가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해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등 신규 소형 컴팩트카의 생산을 통하여 2010년 중 증산을 계획하고 있음.

○ 그러나, 폴란드 승용차 총생산량의 7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Fiat가 2011년까지 Panda 모델의 생산 라인을 이탈리아로 재이전하기로 결정

함으로써, 대체 모델인 Lancia Ypsilon가 생산되기 시작할 2011년까지는 Panda 모델의 생산 중단에 따른 생산량 감소폭이 클 것으로 보임.

○ 더욱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국인 독일 등에서 실시한 폐차 인센티브제가 2009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신차 수요가 감소하여, 제조업체들의 증산 계획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는 폴란드 자동차 생산량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임.

○ 2010년 중 폴란드 시장의 신차 판매량도 부가가치세(22%) 면제 등 세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
【이 진 경】